

No.6 - 세쓰분에

콩을 던지는 축제로도 알려진 세쓰분(節分)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2월 3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일본의 절이나 가정에서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를 빌기 위해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요괴는 나가고, 복은 들어와라)’라고 외치며 콩을 던집니다.

그러나 긴푸젠지 절의 세쓰분에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쫓겨난 모든 요괴들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고치도록 한다는 의미로 ‘후쿠와 우치, 오니모 우치(복은 들어오고, 요괴도 들어와라)’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특이한 세쓰분의 전통은 슈겐도의 시조인 엔노 교자(634~701)가 젠키(前鬼)와 고키(後鬼)라는 두 요괴를 붙잡아 개심시켰다는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이 긴푸젠지 절의 세쓰분에에서 볼 만한 행사로는 본당인 자오도에서 열리는 오니오도리(요괴춤)와 이어서 행해지는 ‘고마(호마 태우기)’라는 불을 사용하는 박력 넘치는 의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메마키(콩 던지기) 행사가 진행됩니다.